

세계한상대회, 첫 민간 운영위원장 체제 출범

- 황병구 운영위원장, 윤덕창 부위원장 임명...2년간 세계한상대회 주도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3.23.(월) 세계한상대회*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하고, 대회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본격 출범시켰다고 밝혔다.

* 세계한상대회 :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행사

○ 운영위원장에는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이, 부위원장에는 윤덕창 아시아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연합회장이 임명됐다.

○ 두 사람은 임명을 기점으로 2년간 세계한상대회 운영을 이끈다.

□ 이번 임명은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간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 ‘세계한상대회 운영 규정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.

○ 재외동포청은 앞서 ‘민간 자율성 강화’를 핵심으로 대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으며, 이를 통해 세계한상대회는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.

□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“세계한상대회의 첫 민간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.”며 “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임명은 세계한상대회의 중요한 전환점”이라며 “민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회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‘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’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붙임 : 행사사진 3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사무관 이영복 (032-585-3227)

